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 나타난 치카나 문학의 새로운 경향

이 성 훈

(서울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 라티나 문학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레이나 그란데(Reyna Grande)의 『일백 개의 산을 넘어(Across a Hundred Mountains)』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치카나 페미니즘의 극복과의 연관성보다는 이주자 소설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이 이주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주목했던 치카나 페미니즘의 유산을 이어받고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 치카나 페미니즘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자들을 다루는 새로운 경향이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치카나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치카나 페미니즘의 틀을 넘어서는 요소는 무엇이고,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말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경향성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국경 소설(Post Gatekeeper Border Fiction)'이라는 개념을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이 작품에는 치카나 페미니즘 보다는 1990년대 등장한 포스트 게이트 시기의 이주실종자로 인한 트라우마가 보다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미국의 강압적인 이주 정책을 비판하고, 20세기 후반 이주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 레이나 그란데, 치카나 페미니즘, 『일백 개의 산을 넘어』,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국경 소설, 이주실종자

I. 들어가면서

『일백 개의 산을 넘어(Across a Hundred Mountains)』의 작가인 레이나 그란데(Reyna Grande)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주 1세대로, 2000년대 들어 라티나 문학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¹⁾ 그녀는 멕시코 게레로(Guerrero)주 이구알라(Iguala)에서 1975년 태어났으며,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가게 된 것은 9살 때인 1985년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두 살 때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고, 2년 후에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면서 레이나는 고향의 조부모 품에 남겨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녀 역시 부모들처럼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갔지만 부모들과는 달리 교육을 통해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2년 동안 파세데나 시티 컬리지(Pasadena City College)를 다녔고, 이후 UC 산타 크루스(Santa Cruz)에서 창작과 영화 및 비디오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안티오크(Antioch University)에서 창작 전공으로 석사학위(M.F.A)를 취득했다.

그녀는 이주 1세대자로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했던 자신의 삶을 다룬 자전적인 작품인 『우리들 사이의 거리(The Distance Between Us)』(2012)를 발표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이 작품의 성공 이후 많은 독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속편은 『집이라 불리는 꿈(A Dream Called Home)』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출판되었다. 앞의 작품이 아홉 살의 나이로 미국에 도착한 이후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면, 뒤의 작품은 대학 진학 이후에 겪어야 했던 이주자로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작품들이었지만, 첫 번째 작품은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일백 개의 산을 넘어』(2006)라는 제목의 소설이다. 이 작품 역시 자신의 이주 경험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들은 주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청소년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²⁾

1) 그녀는 미국도서상(American Book Award), 아스틀란문학상(EI Premio Aztlán Literary Award), 국제라티노도서상(the International Latino Book Award)을 받았다. 또한 2012년에는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s)의 최우수후보에 올랐다.(www.reynagrande.com)

『일백 개의 산을 넘어』는 멕시코의 가난한 시골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판잣집에서 아빠(Apá), 엄마(Amá)와 함께 살고 있던 11살 소녀인 후아나(Juana)의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다. 어느 날 밤 홍수로 급격하게 불어난 물로 인해 마을이 잠기게 된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줄 아버지를 기다리지만, 아버지는 홍수로 길이 막혀 오지 못한다. 결국 어머니는 집안까지 차오르는 물을 피해 후아나에게 어린 동생인 아니따(Anita)를 안고 식탁 위에 피신하게 하고는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후아나는 공포 속에서 잠이 들면서 안고 있던 아니따를 놓치게 된다. 아니따는 집안에 차 있던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만다. 장례를 치를 돈이 필요했던 후아나 가족은 마을의 부자인 돈 엘리아스(Don Elías)에게 빚을 지게 되고, 아버지는 돈을 갚기 위해 “저 너머” 미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야 했다.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녀들을 버렸다고 그녀와 엄마를 조롱한다. 게다가 돈 엘리아스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어머니에게 돈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다. 돈 엘리아스와 잠자리 이후에 엄마는 죄책감으로 술에 의존하여 자신의 죄를 잊고자 한다. 또한 돈 엘리아스가 태어난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빼앗아 가면서 엄마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돈 엘리아스를 살해하게 된다.

후아나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 자신들을 구하러 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지만 아버지에게서 소식이 없다. 결국,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미국을 향해 떠난다. 국경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요테를 찾는 과정에서 아델리나(Adelina)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 아델리나가 남자 친구 손에 살해되자, 후아나는 아델리나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간다. 후아나는 아델리나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게 된 이후에도 계속 아버지를 찾는다. 마침내 그녀는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국경지대에서 발견하

2) “Reyna Grande: Award Winning Author and Inspirational Speaker”,
<http://www.reynagrande.com>

여 수습해 고향으로 오고,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바다에 흩뿌린다. 이렇게 이 작품은 후아나라는 어린 소녀가 아텔리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성장하여 과거의 기억들을 해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백 개의 산을 넘어』가 갖는 의미를 치카나 페미니즘과의 극복과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양상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이 이주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주목했던 치카나 페미니즘의 유산을 이어받고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 치카나 페미니즘이 쇠퇴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주자들을 다루는 새로운 경향이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치카나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치카나 페미니즘의 틀을 넘어서는 요소는 무엇이고,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말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경향성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II. 치카나 페미니즘과 『일백 개의 산을 넘어』

1세대 이주자로서 그란데는 자신의 글쓰기에 개인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부모님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고 어쩔 수 없이 “뒤에 남겨진 어린아이의 경험을 그리고자 했고, 이 경험이야 말로 독자들과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란데가 말하는 “남겨진 어린 아이의 경험”은 결국 어린 아이였던 후아나가 “강한 여성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치카나 페미니즘의 맥락과 결부된다.³⁾ 또한 후아나라는 어린 소녀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빈곤과 가족의 비극은 치카노 소설의 전형적인 배경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과 가족의 비극은 제도적인 폭력의 결과이고, 이러한 제도적인 폭

3) Brown, Ruth, *Telling the Story of Mexican Migration: Chronicle, Literature, and Film from the Post-Gatekeeper Period*,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Kentucky, 2013, p.90.

력 속에서 주체적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측면에서 이 작품은 치카나 페미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치카나 페미니즘은 1960년대 치카노 운동(chicano movement)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치카노 공동체 내에서 치카나 여성들의 자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치카나들은 마치스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치카노 운동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치카노 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남성 우월적 분위기와 젠더 차별로 인해 치카나들은 이 운동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각했다.⁴⁾ 이런 치카나들의 각성으로 인해 1970년대 들어 치카나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1970년대 치카나 페미니즘은 치카노 운동 내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젠더 갈등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치카나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여성 차별을 극복하고자하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치카노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점차 젠더 문제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의식이 강화되면서, 치카나 페미니즘은 치카노 운동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공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치카나 페미니즘은 치카노 공동체에 대한 차별과 치카노 운동 내의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투쟁 속에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결합”하고자 했다. 그러나 점차 성차별주의와 마치스모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강조되면서 치카노 민족주의와 결별하게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이른바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치카나 페미니즘은 더 급진적으로 나아갔다. 젠더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욕망의 문제를 주로 언급하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치카나 페미니즘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⁶⁾ 이들은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침묵하기도 했지만, 치카노 운동과 치카나 페미니즘 내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억압을 비판하면서 치카나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4) 박은영, 「치카나 페미니즘의 의식: 체리에 모라가의 『전시 사랑법』과 안살두아의 『경계/프론테라』」, 『중남미 연구』 25권 1호, 2006, 1-2쪽.

5) 이성훈, 「『경계지역 Borderlands/La Frontera』에 나타난 메스티사 의식 연구」, 『스페인어문학』 39호, 2006, 221쪽.

6) 위의 책, 223쪽.

치카나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유발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치카나 페미니즘은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자 공동체에 만연한 남성중심적 질서를 비판하고, 전통적인 젠더 정체성을 극복하는 흐름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 속에도 치카나 페미니즘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하는 후아나의 모습과, 제도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후아나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 어머니이자 부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전통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나 작품에서 돈 엘리아스를 살해하는 장면은 이런 사회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부를 통해 악행을 일삼으면서 마을의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돈 엘리아스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강제로 빼앗아갔다. 후아나가 세례식 전날 돈 엘리아스 부부가 아기 옷을 사는 장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 엘리아스는 자기 가문의 이름을 물려주고 자기 아들로 키우고자 한다.(184)⁷⁾ 후아나는 아들을 빼앗긴 후 술에 의존하여 거의 실성한 상태로 살고 있는 엄마에게 아들의 세례식 사실을 감춘다. 엄마가 세례식 소식을 알게 되면 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리라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세례식 사실을 알고 있던 엄마는 세례식에 가서 아들을 되찾아 오려 하지만 실패하고, 돈 엘리아스를 살해하게 된다.

교회 문이 뚫 열리고, 수갑을 차고 옷은 온통 피범벅이 된 채로 엄마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 옆에서 세 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경찰차로 끌고 가고 있었다.

후아나는 울며 달려갔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을 한 거야, 엄마? 무슨 일을 한 거냐구?”(…)

“저 살인자를 데려가 버려.” 도나 마틸데는 소리쳤다. “감옥에서 썩으라 그래!”(187-188)

돈 엘리아스를 살해하는 장면은 자식을 되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7) 우리말 번역본은 박은영의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후 특별한 표식이 없는 괄호 안의 숫자는 박은영이 번역한 『일백 개의 산을 넘어』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을에서 돈 엘리야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마을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일삼았다. 후아나 가족의 경우에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아버지는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고, 어머니는 그에게 성적인 댓가를 치러야 했다. 결국, 돈 엘리야스는 빈곤을 구조화하는 사회질서와 이를 통해 여성들의 성을 갈취하는 억압적 사회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돈 엘리야스의 살해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수단과 왜곡된 젠더관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카나 페미니즘의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체적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여성 주인공’인 후아나라는 점에서도 치카나 페미니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홍수 속에서 줄을 때문에 자신의 어린 동생을 잃어버렸던 ‘잔혹한’ 경험을 했던 나약한 소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성장한 후아나의 모습은 치카나 페미니즘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특히, 그녀가 미국으로 자신으로 안내해줄 코요테를 만나기 위해 매춘부로 일하는 모습과, 같이 매춘부로 일하던 아텔리나와 친분을 맺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매춘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매춘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후아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매춘부로서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던 아텔리나가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되자, 후아나는 아텔리나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었고 아버지를 찾으려는 목표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행위는 후아나의 개인적인 변화가 유쾌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던 공간 내에서 벌어졌고, 매춘부라는 직업과 매춘부들 사이의 정서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남성적 관점을 전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아텔리나가 매춘부이자 보호자로서 후아나의 변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치카나 페미니즘의 문법을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받아 보관해 오던 접시 세트를 부수는 장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돈 엘리아스와의 원하지 않은 성 관계 이후 자신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이기는 하지만, 결혼 기념으로 소중한게 간직해온 접시 세트를 부수는 장면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접시 세트를 부수는 장면이 자신의 정조를 손상당한 것에 대한 자책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동생을 통해 어머니가 남긴 접시 한 개를 후아나가 물려받는 장면은 치카나 페미니즘이 목표로 했던 전통적인 젠더관과 억압적인 사회질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어머니가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정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관했던 상징적인 물건을 이어받음으로 인해, 치카나 페미니즘의 전복적인 사유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카나 페미니즘이 가정과 사회 내에 존재하는 억압적인 사회질서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전복적 사유를 시도했다면,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모습은 치카나 페미니즘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Ⅲ. 치카나 페미니즘과의 차별성

이 작품의 분석에서 남성 인물이 차지하는 역할에 주목하면서 치카나 페미니즘과 다소 차이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치카나 페미니즘이 여성 주인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옥파란타(Chinenye I. Okparanta)는 이 작품을 치카나 페미니즘 전통에서 “하나의 변화 혹은 일탈”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 내에서 그간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남성 인물을 재도입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본 것이다.⁸⁾ 이 작품을 국내에 소개한 역자인 박은영 역시 작품 해제에서 치카나

8) Okparanta, Chinenye I., “Deconstructing Home: Chicana Women and the Quest for Fathers in Reyna Grande’s *Across a Hundred Mountains*,” *Michigan Feminist Studies*

페미니즘 문학 전통과 관련하여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치카나 페미니즘 전통 속에 이 작품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일백 개의 산을 넘어』가 다른 치카나 페미니즘 작품과 다른 지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은영이 주목하는 것 역시 이 작품 속에 남성인물을 다루는 태도가 기존의 경향과 차별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 하위주체적 위치에서 쓰인 증언문학적 경향도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⁹⁾

이렇게 이 작품은 남성인물을 다루는 태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치카나 페미니즘 작품에서 남성 인물은 여성 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이었고 폭력적인 젠더 정체성이 지배하던 가정이라는 공간도 “여성중심의, 여성을 위한 공간의 생성”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한다. 치카나 페미니즘 작품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서는 가족과 강력한 감정적 연대감을 가지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가 등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은영은 『일백 개의 산을 넘어』가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에 남성 인물을 재도입하려는 시도”라고 읽는 것이다.¹⁰⁾ 실제로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고, 후아나는 이렇게 집을 떠나 소식이 없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듯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한 ‘부드러운’ 아버지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떠나는 장면에서 후아나가 전해준 묵주는 그녀가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고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증표가 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아빠! 아빠!”

아빠는 돌아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거 받으세요. 아빨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후아나는 자신의 묵주를 아빠의 못 박힌 손에 얹고 그의 손가락으로 그걸 덮었다.(56)

Vol. 23 No.1, 2010, p.2.

9) 그란데, 레이나, 『일 백개의 산을 넘어』, 박은영 역, 글누림, 2014, 342쪽.

10) 위의 책, 342쪽

옥파란타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존재는 가족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였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힘들어 하는 후아나에게 대해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이었다고 자책하고 있다.

“그건 내 잘못이었단다, 후아나. 우리가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어.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면 시내와 더 가까운 곳에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야.”(…)

“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강을 헤엄쳐 건너야 했어. 그랬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게다.”(…)

“셋, 후아나. 나는 네가 그 일이 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듣고 싶지 않다. 내 잘못이었어. 오로지 내 잘못, 말할 놈의 잘못이었어!”(33)

이렇게 아버지는 “전형적인 나쁘고, 실업인, 범죄자 치카노 남성 이미지, 그러니까 치카노 운동 초기의 미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남성 인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책임지기 고군분투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모습은 무기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어머니는 소식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자괴감과 어린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술에 젖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보라차(La Borracha), 술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냐 루페나 혹은 가르시아 부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라 보라차였다.¹¹⁾ 마을의 술꾼이었다.(165)

이처럼 그란데의 소설은 전형적인 치카나 페미니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에 대한 클리셰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성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인물이 서사의 핵심에 위치해 있으며 ‘수동적’인 여성 인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후아나는 주체적이지만

11) 라 보라차(La Borracha)는 스페인어로 술에 취한 여자, 혹은 술꾼을 뜻한다.

아버지의 존재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²⁾ 또한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기 보다는 술에 의존하는 엄마의 모습은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에서 초기 여성 주인공들이 보여주었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아니따의 죽음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요로나 전설의 변주를 들 수 있다. 요로나 전설은 부유층 남자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여인이 남자에 보복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는 그 후회로 밤마다 물가에서 아이들을 찾아 울부짖고 다닌다는 내용이다. 치카나 페미니즘은 요로나 전설을 전복적으로 전유하여 페미니즘을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했다. 즉, 요로나 전설에서 남성의 배신은 대체로 용인되고, 여성의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됨으로써 여성의 성, 도덕성, 젠더 역할, 이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치카나 페미니즘 작품은 요로나를 잃어버린 자식인 자신들을 찾아서 우는 인물, 자신들의 모순적 상황을 압축하고 있는 존재로 해석함으로써 요로나 전설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즉, 치카나 페미니즘 작가들은 요로나를 남성들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상징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다.¹³⁾ 치카나 페미니즘은 나아가 요로나 전설에 나타나는 유아 살해를 전통적 여성관에 대한 전복이자 가부장적 규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전복한다. 이처럼 치카나 페미니즘 작품에서 요로나는 나약하고 버림받은 여성이 아니라, 강한 여성으로 재해석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대안적 전망의 주체로 변하게 된다. 젠더 정체성에 대한 억압적 정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인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나 치카나 페미니즘에 등장한 이런 요로나의 저항적 모델과 달리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를 잃고 헤매는 여성은 나약하고 수동적이다. 그녀는 아이를 잃고 술에 취해 떠돌면서, 아이가 죽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12) Okparanta, Chinenye I., *ibid.*, p.5.

13) 강성식, 「치카나들의 세 어머니와 산드라 시스네로스: 『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3권 1호, 2012, 210-212쪽.

“너희 어머니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나, 애야. 그녀는 저 아래쪽 모지에서 자기가 요로나인 것처럼 아이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어.”(132)

“넌 왜 잠이 들었던 거니?”

후아나는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가만히 있으려고 힘들게 애썼다.

엄마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넌 왜 잠에 빠진 거니, 후아나? 내가 그 아이를 돌보라고 너한테 말했잖아. 너한테 말했다고.”(134-135)

이런 측면에서 『일백 개의 산을 넘어』는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책임감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한 남성 인물, 퇴행적인 여성 인물, 그리고 요로나 전설의 전통적인 사용 등을 기존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치카나 페미니즘이 목표로 했던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 전복,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해체라는 흐름과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서사 내에 치카나 페미니즘의 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치카나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요소들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치카나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다른 맥락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IV.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국경 소설과 ‘이주실종자’

『일백 개의 산을 넘어』는 이처럼 전통적인 치카나 페미니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치카나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르타 까미테로-산판첼로(Marta Caminero-Santangelo)는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국경 소설 (Post-Gatekeeper border fic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이주자 소설이 ‘동화와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이주경험을 주로 다뤘다면, 이와는 다른 새로운 주제의 이주자 소설이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미멕시코 국경 지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주자를 둘러싼 다른 갈등이 나타났다. 이전까지 이주자

소설은 ‘이주 후’에 미국 사회에서의 동화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주목했다, 특히 치카나 페미니즘은 라티노 공동체에서 여성의 문제에 주목했다. 그러나 샌디에고(San Diego) 지역의 ‘게이트키퍼 작전(Operation Gatekeeper)’(1994)과 엘파소(El Paso) 지역의 ‘홀드 더 라인 작전(Operation Hold-the-Line)’(1993)을 포함한 일련의 국경 강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고 본다.¹⁴⁾ 이런 조치들로 인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사망 혹은 실종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혹은 실종된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처들을 “문화적 트라우마의 하나의 형식(a form of cultural trauma)”으로 기록한 작품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¹⁵⁾ 이런 작품들을 그녀는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국경 소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까미테로-산판헬로는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에 미백 국경을 넘다가 실종된 이른바 ‘이주실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야기한 문제와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군부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 및 ‘실종자’ 문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국경 실종자들을 다루고 있는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소설 역시 라틴아메리카 군부 독재 치하의 실종자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과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한다.¹⁶⁾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종자 문제가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의 지점이자 저항의 상징물이 되었듯이,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실종자들 역시 국경과 이주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세계화된 불평등과 구조적 빈곤을 환기하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주자 문제를 다루면서 실종자가 주된 주제가 등장하게 된

14) 불법 이주자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1986년 이민개혁법(IRCA)이 만들어지면서 관용적인 이민 정책에서 억압적인 정책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멕시코계 이주자들의 불법 이주자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되면서 보다 강압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게이트키퍼 작전이나 홀드 더 라인 작전과 같은 억압적인 국경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 후퇴로 인해 불법이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보수적인 목소리가 보다 강화되면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주도로 억압적인 정책들이 등장했다. 이성훈, 「라티노 이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스페인어문학』 56호, 2010, 528-529쪽.

15) Caminero-Santangelo, Marta, “The lost ones: Post-gatekeeper border fic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trauma,” *Latino Studies* Vol.8, 2010, p.304.

16) Caminero-Santangelo, Marta, *ibid.*, p.306.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나타난 국경 정책의 변화가 놓여 있다. 1990년대 들어 국내의 정세 변화로 인해 미국의 이주자 정책은 억압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미백 국경 지대는 보다 더 폭력적으로 관리되게 된다. 그만큼 불법이민 방식으로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이주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까미넬로-산탄헬로는 홀드 더 라인 작전과 게이트키퍼 작전을 통해 불법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주로 선택하는 엘 파소(El Paso)와 샌디에고(San Diego)라는 국경 통과 거점에 대한 국경 순찰의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주자들은 보다 위험한 루트를 선택해야만 했다고 지적한다.¹⁷⁾ 과거 보다 불법 이주자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이 힘들어졌고, 보다 험난한 불법 월경 과정에서 탈수나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¹⁸⁾

이런 과정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 미백 국경 지대는 이주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을 상징하는 ‘실종자’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국경 지대가 단순하게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나야하는 ‘역경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과 실종의 장소이자 기억되어야 할 공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들어 국경 지대를 경계의 공간이 아니라, 이주자들의 존재성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다루는 작품들이 등장했다.¹⁹⁾ 강력한 이주 억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자, 실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일백 개의 산을 넘어』도 이런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이주자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서사가 후아나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지만 아버지의 실종이라는 보다 중요한 서사적 기제가 이 작품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

17) Ibid., pp.306-307.

18) 2000년 게이트키퍼 작전으로 남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 지역에서만 사망자 수가 600명에 달했는데, 이 수치에는 아리조나 사막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까미넬로-산탄헬로로 적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불법 이주를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다가 사망한 숫자가 100% 증가했고, 이 증가의 3/4 이상은 아리조나-소노라(Arizona-Sonora) 국경에 있는 사막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결과이다. Caminero-Santangelo, Marta, *ibid.*, p.307.

19) Caminero-Santangelo, Marta, *ibid.*, p.307.

다.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트라우마와 정체성의 혼란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게이트 키퍼 시기 국경 소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아텔리나가 그녀에게 아버지의 유골을 전하면, 그리고 일단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나면, 그녀는 어머니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텔리나가 엄마에게 주는 선물이 될 것이다.

평화.

그리고 진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248-249)

위 인용문에는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상처의 깊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실종 이후 버림받았다는 정서적 박탈감, 경제적 버림목이었던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후아나가 떠남으로써 생긴 가족의 해체 등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후아나가 아버지의 시신을 국경지대에서 발견하고 목주를 통해 아버지임을 확인함으로써, 가족들은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백 개의 산을 넘어』는 이주실종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주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일백 개의 산을 넘어』는 후아나가 국경을 넘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일부 증언서사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그러나 주된 관심은 이주와 실종을 통해 고향에 남겨진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아나가 전해 준 심장 모양의 목주를 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기 까지 자신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상처, 그리고 이 상처가 남긴 심리적 외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겪었던 가장 큰 트라우마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혹은 잊어졌다는 두려움이었다.

후아나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두렵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아빠가 일단 저 건너편으로 가고 나면 자기를 잊게 될까 두려운 걸까?(56)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후아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고, 국경 지대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그가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손에 꼭 쥐던 목주를 통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과 가족적인 유대감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이주자 소설이지만, 이 소설은 월경 과정을 사실적으로 다루는 증언서사적인 작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종과 죽음의 공간인 사막에 대한 묘사와 함께 주인공이 이 지역을 건너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후아나가 국경을 넘기 위해 북쪽으로 가면서 보게 되는 시체들은 포스트 게이트 시기 국경의 엄혹함을 보여주는 증언서사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레이나 그란데가 보다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뒤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닥친 일들이다.²⁰⁾ 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통해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산들 건너편에서, 그녀는 아빠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찾으면 그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가지만을 물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 아빠?(140)

“우리 아버지는 우릴 버리지 않았어요.” 후아나는 말했지만, 이번엔 그녀의 말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편을 드는 일에 지쳐 있었다.(165)

인용문에 나타난 후아나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는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주제이다. 그란데는 기존의 이주자 소설과 달리 실종자가 가족과 공동체에 남긴 트라우마에 주목함으로써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국경소설은 미국의 이주 정책과 국경 정책을 비판하는 증언서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남

20) Brown, *ibid.*, p.90.

겨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통해 강압적인 이주정책이 야기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주실종자 문제는 폭력적으로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주된 문학적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그란테의 소설이 비인간적인 국경 정책을 포함해 이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족 해체와 개인 정체성의 훼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폭력적인 이주정책과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실종자들을 다루는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소설에서 “건너편(El Otro lado)”은 동화와 차별이라는 이주 이후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폭력적인 상징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이주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도의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레이나 그란테가 『일백 개의 산을 넘어』의 현사에 적은 “저 건너편(El Otro Lado)에 도달하려다 스러져간 이들에게”라는 표현이 이런 그녀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의 주된 등장인물인 후아나가 국경을 넘기 위해 코요테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감정에도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잘 드러나 있다.

살아서 저 건너편을 보게 될지 누구도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약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겁내고 있었다.(272)

이렇듯 국경은 죽음을 환기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시신이 묻힌 돌무덤은 국경 지대의 폭력성을 잘 드러낸다.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국경 소설은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닥친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 주목하고 있으며, ‘남겨진 자’들의 트라우마를 통해 이주의 새로운 경험들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V. ‘이주실종자’와 남겨진 자들의 상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 국경 소설’이라는 개념

은 이주 실종자와 남겨진 자들의 상처를 다루는 소설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²¹⁾ 이주 실종 과정의 경험을 중요하게 다루는 ‘증언서사적’인 작품 경향과 ‘남겨진 자들의 상처’에 주목하는 경향 등 두 가지가 큰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서는 후자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남겨진 자들의 정체성이 파편화되는 과정을 통해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하는 상처의 깊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전체 47개의 작은 장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우 간략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각 장은 후아나와 아텔리아라는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교차되고 있다. 즉 첫 번째 장은 후아나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며, 두 번째는 아텔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매 홀수 장들과 짝수 장들은 각각 후아나라는 제목과 아텔리아라는 제목과 함께 등장한다. 후아나라는 이름을 단 이야기들은 홍수가 범람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던 날부터 시작해서 시기적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한편, 아텔리아라는 이름을 단 장들은 전직 코요테와 함께 들무덤에서 심장 모양의 알로 만든 하얀 목주를 든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아텔리아와 후아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마지막 장까지 이 두 인물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인물의 이야기가 서로 결합되고 있다.

이렇게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후아나의 유년기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텔리아 사이의 지속적인 관점의 변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혼란스러움을 준다.²²⁾ 그러나 이런 교차를 통해서 후아나의 두 페르소나 사이에 가변성의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일 인물이 후아나와 아텔리아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주실종자가 남긴 트라우마의 결과이다. 기존의 이주자 소설이 라티노의 정체성 문제를 ‘동화와 차별’이라는

21) ‘포스트 게이트키퍼 국경 소설’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후반 진행된 일련의 국경 강화 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협소한 시간적인 범주를 갖는다. 1990년대 후반의 국경 강화 조치이후의 사건들과 최근의 미백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보다 더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이주실종자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미백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실종된 사람들과 관련된 주제를 개념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Brown, *ibid.*, p.91.

관점에서 주로 다뤘다면, 포스트 게이트키피 시기 국경 소설에서는 이런 정체성 문제를 보다 극단적인 층위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동일 인물임이 드러나는 후아나와 아텔리나의 관계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후아나는 티후아나의 유곽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던 아텔리나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의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가지면서 그녀 역할을 하고 있다. 후아나는 아텔리나가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아텔리나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체성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아텔리나의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후아나는 거기 기록된 정보들을 외우면서 오랫동안 그걸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입을 열어 말했다.

“이름이 뭐죠?” 이민국 관리들이 물어볼 최초의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영어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제 이름은 아텔리나입니다. 아텔리나 바스케스.”(296)

이렇게 친구였던 아텔리나 바스케스의 신분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간 그녀는 아텔리나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위독함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후아나는 자기 페르소나의 분열에 직면하게 된다.²³⁾ 어린 시절 집이 있던 자리에 도착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알고 지내던 산드라(Sandra)가 후아나라는 원래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을 때 주인공은 자신의 두 페르소나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오두막이 사라져서 서운하니, 후아나?” 산드라는 물었다.

아텔리나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불리자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안해.” 산드라는 말했다. “아텔리나라고 불려야 했는데.”

“아텔리나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어쩌면 그녀를 쉬게 해 줄 때가 됐나 봐요. 후아나라고 부르세요. 그게 저니까요.”

산드라는 아텔리나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난 네가 틀린 것 같다.” 산드라가 말했다. “넌 더 이상 후아나가 아니야.

23) *Ibid.*, p.97.

너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한 성공한 여성이야. 넌 새 이름 아델리나를 그대로 써야 해.”(299)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자신의 두개의 정체성들 사이의 동요를 보여준다. 물론 고향에서 주인공이 어떤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변화된 후아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는 성년이 된 후아나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녕, 엄마.” 그녀는 눈을 뜬 채로 말했다. “나야, 후아나. 엄마 딸.”
엄마는 그녀를 바라보고 고개를 저었다. “넌 우리 후아나가 아니야.(306)

퇴행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엄마가 후아나의 성장과 귀환을 부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후아나-아델리나의 정체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유보되는 것이다. 어머니가 후아나를 자신의 딸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족의 정체성이 해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엄마가 후아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주 실종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강렬함을 알려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월경 과정에서 실종되는 사건은 개인적인 정체성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의 부재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도 아버지의 실종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정체성들을 조각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겨진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²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후아나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 후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겪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돈 엘리시아와의 강압적인 성관계 이후로, ‘가르시아씨 부인(Señora García)’라고 불리는 대신 ‘돈 엘리아스의 창녀(Don

24) Caminero-Santangelo, Marta, *ibid.*, pp.314-316.

Eliás's puta)'라고 불려진다. 그녀의 정체성은 더 이상 가르시아씨의 부인이자 후아나의 엄마가 아닌, 부정적인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후아나가 술에 취해 땅바닥에 누워 있는 엄마를 우연히 발견하는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후아나에게 “저 미친 여인(That crazy woman)”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하는데, 엄마는 기존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124).

아버지가 떠난 후 태어난 아들의 정체성도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아들의 정체성 혼란 역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아버지가 미국으로 떠난 후 의도하지 않은 돈 엘리아스와의 성관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까지 명확하게 아버지가 명시되지 않는다. 후아나와 엄마는 그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미겔리토(Miguelito)라고 부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돈 엘리아스의 아이로 받아들인다. 돈 엘리아스는 결국 아이를 납치하여 호세 알베르토라는 자기 가문의 이름을 부여한다. 이렇게 미겔리토 혹은 호세 알베르토 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아이 역시 아버지의 이주 실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후아나가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아버지의 유해를 들고 고향에 돌아오는 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자신의 동생을 만나게 된다. 그는 호세 알베르토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모른 채 돈 엘리아스의 아들로 성장한 것이다. 물론, 작품의 마지막에서 동생과 후아나는 서로 형제임을 알게 되지만, 이들의 정체성의 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실종은 실제로 가족사를 단절했다.(332-3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아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로 착각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이들 가족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부재 이전과 이후로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실종이 야기한 정체성의 대혼란은 아델리나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던 사람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잃고 '다른'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찾고 싶어 한다.

“너무나 힘 드셨겠어요.” 아델리나는 말했다.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

른 채로 사신다는 게요.”(227-228)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아델리나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자신과 이주실종자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상처를 보여 준다. 이처럼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서사적 갈등은 주요 인물들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실종에 의해서 파편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페르소나 사이에서 동요하는 후아나-아델리나, 가르시아씨 부인에서 “미친 여인”으로 익명화하는 어머니, 미겔리또와 호세 알베르토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아들 등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이주 실종자’로 인해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트라우마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일백 개의 산을 넘어』가 갖는 의미를 마치스모에 의해 왜곡된 젠더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치카나 페미니즘의 전통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주자 소설에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품 속에서 남성 인물이 중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치카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기 보다는 이주자 소설의 새로운 경험을 다루려는 서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레이나 그란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찾아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와 멕시코에 남겨진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주목함으로써, 이주 실종이 개인과 공동체에 남긴 상처와 강압적인 이주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이주 실종이 단순하게 한 개인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런 서사 전략을 위해 아버지라는 남성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레이나 그란데의 소설은 후아나라는 여성 인물의 주체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치카나 페미니즘의 유산을 이어받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을 치카나 페미니즘이라는 범주로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레이나 그란데는 책임감 있고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

해, 아버지를 억압적인 가부장으로 재현하는 많은 치카나 작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일백 개의 산을 넘어』에서 그란데가 주목하는 것은 치카나 페미니즘의 문제의식보다는, 이주실종자와 이들이 남긴 다양한 사회 문화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트라우마를 드러내기 위해 레이나 그란데는 두 개의 관점을 서로 교차하여 병치시켰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후아나와 미국으로 이주하여 아델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후아나의 이야기를 병치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정체성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테크닉을 통해서 아버지의 실종에 따른 후아나의 정체성의 돌이킬 수 없는 파편화를 드러낸다. 이런 정체성의 파편화는 후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등 아버지의 이주 실종으로 인해 남겨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의 결과이다.

마르타 까미네로-산탄헬로는 이렇게 이주실종이 남긴 트라우마를 다른 작품들을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국경 소설’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과거 동화와 차별이라는 이주자 경험에 주목했던 이주자 소설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강압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이주과정에서 실종 혹은 사망한 이주자들의 수가 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 역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겪어야 하는 상처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백 개의 산을 넘어』는 1960년대 이래 진행된 치카나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1990년대 등장한 포스트 게이트키퍼 시기의 이주실종자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미국의 강압적인 이주 정책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이주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성식, 「치카나들의 세 어머니와 산드라 시스네로스:『우먼 홀러링 크릭과 다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3권 1호, 2012.
- 강성식, 「치카나 페미니즘 문학과 경계」,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4권 1호, 2013.
- 그란테, 레이나, 『일 백개의 산을 넘어』, 박은영 역, 글누림, 2014.
- 박윤기, 「치카나 성장소설로서 『망고스트리트의 집』 읽기」, 『영어영문학연구』 43권 3호, 2017.
- 박은영, 「치카나 페미니즘의 의식: 체리에 모라가의 『전시 사랑법』과 안살두아의 『경계/프론테라』」, 『중남미 연구』 25권 1호, 2006.
- 이성훈, 「『경계지역 Borderlands/La Frontera』에 나타난 메스티사 의식 연구」, 『스페인어문학』 39호, 2006.
- 이성훈, 「라티노 이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스페인어문학』 56호, 2010.
- 최유정, 「치카나 문학의 다양한 목소리 - 글로리아 안살두아, 산드라 시스네로스, 아나 까스띠요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17호, 2006.
- Alarcón, Norma, “Traductora, Traditora: A Paradigmatic Figure of Chicana Feminism,” *Cultural Critique* Vol.13, 1989.
- Antoszek, Ewa, “Contested Spaces/Striated Spaces: Representations of the Border in Reyna Grande’s *The Distance Between US: A Memoir*,” *Roczniki Humanistyczne* Vol. LXIV No.11, 2016.
- Brown, Ruth, *Telling the Story of Mexican Migration: Chronicle, Literature, and Film from the Post-Gatekeeper Period*,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Kentucky, 2013.
- Caminero-Santangelo, Marta, “The lost ones: Post-gatekeeper border fic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trauma,” *Latino Studies* Vol.8, 2010.
- de Veritch Woodside, Vanessa, *Forging Alliances across Fronteras: Transnational Narratives of Female Migration and the Family*,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New Mexico, 2012.

- Delgadillo, Theresa, "The Criticality of Latino/a Fi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23 No.3, 2011.
- Espejo, Ramón; Guijarro, Juan I.; Lerate de Castro, Jesús; Marín, Pilar, *Critical Essays on Chicano Studies*, Berlin: Peter Lang, 2007.
- García, Patricia M., "The "I" Before the Border: An Interview with Reyna Grande," in *Symbolism 17: Latina/o Literature: The Trans-Atlantic and the Trans-American in Dialogue*, Rüdiger Ahrens, Florian Kläger, Klaus Stierstorfer,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2017.
- Martínez, Pablo E., "Masculinity Reconfigured: Shaking up Gender in Chicano/Latino Literature," *Divergencias: Revista de estudios lingüísticos y literarios* Vol.10 No.1, 2012.
- Mirandé, Alfredo, "The Chicano Family: A Reanalysis of Conflicting View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9 No.4, 1977.
- Morales, Elsa, *Confluencias y Divergencias de las Voces Femeninas en la nueva novela histórica y su herencia en la narrativa de la autora mexicoamericana Reyna Grande*, Tesis doctoral, The University of Arizona, 2018.
- Okparanta, Chinenye I., "Deconstructing Home: Chicana Women and the Quest for Fathers in Reyna Grande's *Across a Hundred Mountains*," *Michigan Feminist Studies* Vol.23 No.1, 2010.
- Rohrleitner, Marion Christina, "Chicana Memoir and the DREAMer Generation: Reyna Grande's *The Distance Between Us* as Neo-colonial Critique and Feminist Testimonio," *Gender a výzkum / Gender and Research* Vol.18 No.2, 2017.
- Sánchez, Marta, *Por imaginación y amor: el permanecer del padre mexicano a distancia*, Tesis doctoral, Chapel Hill, 2012.

❖ ABSTRACT

*A New Trend in Chicana Literature through the
analysis of Across a Hundred Mountains*

Lee, Seong-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Across a Hundred Mountains* written by Reyna Grande, one of the most renowned writers of Latin literature in the 2000s.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aspects of immigrant-fiction as compared to the novel's relevance to Chicana feminism. While the book does continue the legacy of Chicana feminism by highlighting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 women, it also surpasses this aspect. This is to say that, in the backdrop of the decline in the discourse on Chicana feminism that started in the 1990s, a new way of addressing immigrant narratives is emerging.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elements of Chicana feminism represented in the novel. It then exhibits the aspects that extend beyond the framework of Chicana feminism and discusses what this change represents by introducing new concepts.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cle aims to make explicit the new tendencies that are emerging in immigration-fiction which first appear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Specifically, the article appropriates the concept of 'post-Gatekeeper border fic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main theme of the novel centers around the trauma suffered during migrant disappearances in the post-gatekeeper period as opposed to notions of Chicana feminism. In conclusion, the novel criticizes the forcible migration policy of the U.S. and offers a different perspective on migration issues of the late 20th century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post-gatekeeper border fiction.

Key Words : Reyna Grande, Chicana feminism, *Across a Hundred Mountains*,
Post-Gatekeeper border fiction, immigrant disappeared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

